중학생의 집단따돌림 참여 역할에 따른 행동문제

김 동 희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 Abstract =

Behavioral Problems according to the Role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School Bullying

Dong Hee Kim

College of Nursing, Su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behavioral problems according to the role of the students in school bullying in adolesc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571 students, first to second-grade in a middle school. The instruments used were; K-PNI (Korean-Peer nomination inventory), K-YSR (Korean-Youth Self-Report) developed for adolescents in Korea. Descriptive, χ^2 test, ANOVA were used.

Results: Somatic symptom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victims or victim-perpetrator and non-involved, respectively ($F=4.508$, $p=.004$). Social immaturity ($F=9.158$, $p=.000$) and delinquent behavior ($F=3.382$, $p=.018$)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victim-perpetrator and non-involved.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erpetrator or victim-perpetrator and non-involved, respectively ($F=14.048$, $p=.000$).

Conclusion: Behavioral problems in students differed depending on his or her role in school bullying.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applicable to behavioral problems specifically associated with the role of the students in school bullying may effectively intervene in adolescent school bullying.

Key Words: bullying, role, behavioral problem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집단따돌림은 사람 간에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한 명 이상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언어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Olweus, 1994).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학생들의 다양한

※이 논문은 201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김동희,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76가길 55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전화번호: 02-920-7727, 팩스번호: 02-920-2092

E-mail: dhkim@sungshin.ac.kr

원고접수: 2015년 10월 30일, 원고심사: 2015년 11월 16일

원고채택: 2016년 1월 4일

Copyright © 2016 by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집단따돌림에 관여된 청소년기 학생들은 성장발달과정 중에 경험한 이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기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양한 행동문제를 보이게 되고 이는 후에 성인이 된 후까지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삶의 질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청소년기의 교우 관계는 자아통합, 소속감 제공, 행동에 대한 기준을 통합하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경우 이 시기에 또래에게 소외, 거부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적합한 사회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Smith et al., 2003). 실제로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무력감 등의 심리적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 양상 등을 보이게 된다고 보고되었다(Nansel et al., 2004; Rigby, 2003).

또한 피해의 경험 뿐 아니라 가해의 경험도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을 따돌림이라는 부정적 해결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후에 도덕성 상실, 공격적 문제 해결 방법, 비행 및 약물 남용 등 반사회적 행동 패턴을 가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06; Park, 2003).

이 뿐만 아니라 집단따돌림 상황에서는 피해-가해자의 유형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집단따돌림의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또래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해 행위에 가담하게 되거나 피해상황에 대한 불안과 분노로 인해 가해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들은 최근 연구에서 다른 집단따돌림 가담 유형보다 공격성 등 외현화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등 취약한 집단으로 대두되고 있고(Kim et al., 2005) 비행성향이나 강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고 그 외 피해의식, 반항심, 불안 등의 문제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Yom, 2011).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피해-가해와 같이 중복 경험을 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Koh & Lee, 2015).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을 가해자, 피해자로만 양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집단따돌림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라고 볼 수 없다. 또래 구조 안에서 집단따돌림 현상이 피해자의 역할과 가해자의 역할이 뒤바뀌며 반복되는 현상이 집단따돌림을 설명하는 주된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들 유형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또래 집단 과정에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 현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 피해-가해자 유형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행동문제를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구성하고 의하부요인을 각각 나누어 분석하여 추후 중재개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중학생을 대상으로(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피해, 가해, 피해-가해 집단의 어떠한 행동문제가 집단따돌림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각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중재 방법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참여 역할에 따른 행동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임의표집 된 서울 지역에 소재한 1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 총 628명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622명(99.0%)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학년 7개 반, 2학년 8개 반 총 15개 반 622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622부 중 599부(96.3%)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일반적 사항, 행동 문제 문항에 성실하게 답하지 않아 분석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불충분한 자료에 해당하는 28부를 제외한

총 571부(91.8%)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따돌림 참여 역할

집단따돌림 참여 역할은 Perry (1988)에 의해 개발된 PNI (Peer nomination inventory)를 Kim 등 (2001)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K-PNI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PNI는 또래들에 의해 따돌림이 평가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그들 집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따돌림 현상에 대해 교사나 부모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하게 따돌림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또래 집단을 집단따돌림의 평가자로 이용함으로써 개인적인 편견에 의한 영향을 줄이고 평가에 대한 통계학적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im et al. 2001).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PNI는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또래 관계의 폭력을 조사하는 여러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Kim (2001)에 의해 한국의 학교 상황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수정, 추가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후 국내 아동 청소년 연구에도 사용되었다. 총 30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의 이름을 숫자의 제한 없이 쓰도록 되어 있다. 30개 문항 중 12문항은 피해 아동, 7문항은 가해 아동, 나머지 11문항은 중립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2개의 피해자에 대한 문항은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라 소외형 3문항, 언어 폭력형 4문항, 신체적 폭력형 2문항, 강압형 3문항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되어 있다. K-PNI는 또래 아동들이 자신의 반에서 집단따돌림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의 이름을 제한 없이 적게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집단따돌림의 피해 및 가해 아동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도구다. 각 문항에서 지명된 아동 이름의 빈도수는 반 학급 아동의 전체수로 나누고 피해, 가해, 중립의 해당 하위척도로 합산되어 평균 점수로 계산하고 각 해당 하위척도에서 1점 이상(중앙값=0)을 초과한 학생은 집단따돌림의 피해 및 가해 학생으로 정의된다. 피해-가해 학생은 피해, 가해 영역 모두 1점 이상

나온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1년 동안 학급의 상황을 평가하여 이름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연구 개발 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는 피해자 항목 0.94, 가해자 항목 0.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0.92, 0.93이었다(Kim, 2001).

2) 행동문제

대상 청소년의 행동문제는 Achenbach가 개발한 Child Behavior Checklist의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인 YSR (Youth Self-Report)을 Oh 등(1997)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K-YSR을 사용하였다. 행동문제 척도는 1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는 '0점' (전혀 없다), '1점' (가끔이나 약간), '2점' (매우 심하거나 자주)의 0~2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행동문제 척도는 내재화 문제인 위축, 신체화 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와 외현화 문제인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자해/정체감 문제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따돌림 역할에 따른 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남자 청소년에만 적용되는 자해/정체감 하부요인 12문항을 제외한 8개의 하부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하부요인을 더한 값으로 설명되는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는 각 하부요인과 중복되므로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위축’은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등의 사회적인 위축과 철수, 소극적 태도 등을 평가하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화 증상’은 어지러워한다, 몸이 쑤시고 아프다,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를 평가한다. ‘우울/불안’은 외롭다고 불평한다, 잘 운다 등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정도를 평가하는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미성숙’은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한다, 너무 어른들에게 의지하고 매달린다 등의 발달상의 문제와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비사회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고의 문제’는 강박적 사고, 환청 등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사고 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행동을 평가하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의집중 문제’는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

절부절 못한다 등 주의집중력 문제와 이에 따른 행동상의 문제를 평가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행’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등의 비행행동을 평가하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성’은 말다툼을 자주한다,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등 공격성, 싸움, 반항 행동 등을 평가하는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부요인의 Cronbach’s α 는 .78~.89였다.

3)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 성별, 성적과 경제 상태를 자가 보고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성적과 경제 상태는 상, 중, 하로 나누어 인지된 성적과 경제 상태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연구시작 전 본 연구계획에 대한 소속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SSWUIRB 2012-020) 진행하였다. 임의표집 된 서울시 소재 일개 중학교의 1,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먼저 구한 후 각 담임 교사에게도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아침 자습시간에 실시하였고 시작 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 절차, 설문 참여의 자유,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설문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직접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사 이상의 연구원 2인이 진행하였고, 설문 실시 전에 설문지의 내용을 본 연구자와 함께 검토하여 숙지하였다. 본 조사 실시 전에 설문 진행시 필요한 의사 진행과 배부 및 수거 방법에 대해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질문에 대해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설문조사는 기말고사가 끝난 2013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고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PASW software (version 19,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자료를 통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집단따돌림 유형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따돌림 참여 역할에 따른 행동문제에 대한 비교는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학생은 1학년이 274명(48.0%), 2학년이 297명(52.0%)이었으며 남학생이 316명(55.36%), 여학생이 255명(44.7%)이었다. 인지된 경제 상태는 중간 정도로 인지하는 경우가 357명(62.6%)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은 중간정도로 인지하는 경우가 319명(55.9%)으로 가장 많았다. 따돌림 역할은 피해자가 90명(15.8%), 가해자가 124명(21.7%), 가해-피해자는 76명(13.3%)이었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71)		
Variable	Categories	n (%)
Grade	First	274 (48.0)
	Second	297 (52.0)
Gender	Male	316 (55.3)
	Female	255 (44.7)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32 (5.6)
	Middle	357 (62.6)
	High	182 (31.9)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Poor	106 (18.5)
	Average	319 (55.9)
	Above average	146 (25.6)
Type of experience in school bullying	Non-involved	281 (49.2)
	Victim	90 (15.8)
	Perpetrator	124 (21.7)
	Victim-perpetrator	76 (13.3)

2. 집단따돌림 역할에 따른 일반적 특성

대상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역할 즉, 가담하지 않은 집단, 가해 집단, 피해 집단, 피해-가해 집단 간에 학년, 성별, 인지된 경제상태, 인지된 성적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3. 집단따돌림 역할에 따른 행동문제

집단따돌림 역할에 따른 행동문제는 신체화 증상에서 피해 집단과 피해-가해 집단이 가담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9.158, p=.000$). 불안/우울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3.626, p=.013$) 사후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미성숙은 피해-가해 집단이 가담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4.508, p=.004$). 또한 비행 점수가 피해-가해 집단이 가담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F=3.382, p=.018$) 공격성은 가해 집단과 피해-가해 집단이 가담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14.048, p=.000$) (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피해, 가해, 피해-가해 집단의 행동문제를 비교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분석 결과 신체화 증상이 집단따돌림에 가담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피해자와, 피해-가해자에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신체화증상이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Gini & Pozzoli, 2013; Shin et al., 2000).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는 많이 알려져 있는 요인이다(Lee et al., 2015; Lee, 2002).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피해 학생의 경우 따돌림 그 자체로 극심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집단따돌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Akrivos, 2004; Choi, 2013). 이러한 스트레스는 피해 집단의 학생이나 피해-가해 집단 학생의 신체화 증상을 나타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두통, 복통 등 다양한 통증이나 피로, 수면장애 등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ntsson et al.,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y Role of the Students in School Bullying

(n=571)

	Non-involved n (%)	Victim n (%)	Perpetrator n (%)	Victim-perpetrator n (%)	χ^2	p
Grade						
First	127 (45.2)	51 (56.7)	60 (48.4)	36 (47.4)	3.475	.324
Second	154 (54.8)	39 (43.3)	64 (51.6)	40 (52.6)		
Gender						
Male	153 (54.4)	49 (54.4)	71 (57.3)	43 (56.6)	.302	.960
Female	128 (45.6)	41 (45.6)	53 (42.7)	33 (43.4)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18 (6.4)	4 (4.4)	5 (4.0)	5 (6.6)	8.453	.749
Middle	167 (59.4)	62 (68.9)	78 (62.9)	50 (65.8)		
High	96 (34.2)	24 (26.7)	41 (33.1)	21 (27.6)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Poor	33 (11.7)	22 (24.4)	31 (25.0)	20 (26.3)	13.391	.572
Average	155 (55.2)	52 (57.8)	72 (58.1)	40 (52.6)		
Above average	93 (33.1)	16 (17.8)	21 (16.9)	16 (21.1)		

Table 3. Behavior Problem associated with the Role of the Students

(n=571)

Variable	non-involved ^a	victim ^b	Perpetrator ^c	Victim -perpetrator ^d	F	p
	M±SD					
In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						
Withdrawal	3.37±0.70	3.53±.082	3.35±0.63	3.39±0.75	1.433	.232
Somatic symptoms	3.33±0.58	3.60±0.83	3.43±0.66	3.55±0.69	4.508	.004
						(a<b,d)*
Anxiety/depression	7.10±1.41	7.47±1.66	7.33±1.46	7.43±1.50	3.626	.013
Social immaturity	3.78±0.63	4.04±0.78	3.78±0.72	4.15±0.88	9.158	.000
						(a<d)*
Thought problems	2.17±0.48	2.28±0.87	2.20±0.48	2.25±0.58	1.648	.177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						
Attention problems	5.13±0.84	5.45±0.96	5.41±0.88	5.54±0.82	2.695	.056
Delinquent behavior	2.61±0.99	2.71±0.97	2.75±1.13	2.79±1.29	3.382	.018
						(a<d)*
Aggression	8.60±1.52	8.74±1.65	9.56±1.86	9.62±1.85	14.048	.000
						(a<c,d)*

*Scheffe test.

2001; Fekkes et al., 2004; Gini, 2008). 이러한 신체화 증상을 미리 중재하지 않는 경우 정신 병리학적으로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Shin et al., 2000).

사회적 미성숙은 집단따돌림에 가담하지 않은 집단보다 피해-가해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피해-가해 집단이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미성숙이 피해 집단의 특성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최근 피해-가해 집단으로 분류하여 수행된 연구에서 사회적 미성숙, 사회적 기술 부족이 피해-가해 집단에서도 주요 행동문제로 보고되었다(Habash, 2013; Perren & Alsaker, 2006).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 피해-가해 집단에서 사회적 미성숙 문제 행동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들은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유능감 같은 사회적 기술의 부족함으로 인해 집단따돌림 피해자가 되었다가(Kim et al., 2006; Lee, 2000) 미성숙한 사회관계의 해결 방법으로 쉽게 가해자에게 의지하면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역할을 바꾸게 되기도 한다(Choi & Kim, 2010;

Park & Ko, 2005). 이와 같이 사회적 미성숙은 피해-가해 집단의 특징이면서 원인이 될 수 있는 행동문제가므로 향후 피해-가해 집단의 문제행동의 취약성에 대해 강조하고 발생원인, 관련요인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반면 공격성은 가해 집단과 피해-가해 집단에서 집단따돌림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유의한 행동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공격성향의 성격특성을 파악한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Lee, 2000; Park & Ko, 2005). 공격적 성향을 가진 경우 본인에게 내재된 다양한 스트레스나 문제들을 자신보다 힘이 약한 피해 학생에게 따돌림을 가하는 것으로 해소하게 된다. 또한 피해와 가해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피해-가해 집단은 집단따돌림 피해를 당하면서 강한 적개심과 피해의식, 반항심 등의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해자들과 함께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 공격하는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며 공격성이 나타나게 된다(Park & Ko, 2005). 이러한 공격성은 집단따돌림이 중재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때 이들의 공격성은 더욱 강화되고 공격적 문제 해

결방식을 습득하게 되는 등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게 되므로(Kim et al., 2006)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 성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피해-가해 집단이 보이는 문제행동을 살펴보면 신체화 증상같이 피해 집단과 같이 보이는 문제행동도 있고, 공격성 같이 가해 집단이 보이는 문제행동도 같이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미성숙, 비행과 같이 피해-가해 집단에만 나타나는 문제도 보였다. 이는 단순 피해 집단, 가해 집단보다 문제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집단보다 취약하다는 기존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Kim et al., 2005).

본 연구는 임의 표출된 일개 중학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횡단적 연구로 변수간의 원인과 결과 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했다. 또한, 대상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따돌림의 경중에 따른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문제를 참여 역할별로 비교하여 집단따돌림 중재를 유형별로 달리 개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가해, 피해, 가해-피해 학생 모두를 포함하고 또한 집단따돌림 각 유형에 적합한 중재 개발 연구와 그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요약 및 결론

이에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피해, 가해, 피해-가해 학생이 집단따돌림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나타나는 행동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임의 표집 된 서울 지역에 소재한 1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7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K-PNI (Korean-Peer nomination inventory), K-YSR (Korean-Youth Self-Report)를 사용하여 자료 수집하였고 평균, 표준편차, 카이제곱 검정,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피해학생의 경우 신체화

증상이 가해 학생의 경우 공격성이, 피해-가해학생의 경우 신체화 증상, 사회적 미성숙, 비행, 공격성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향후 집단따돌림 연구에서는 피해, 가해라는 이분법적 분류가 아니라 피해-가해학생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따돌림과 같은 행동문제를 설명할 때 적절할 것이며 중재 개발 등의 연구 시에도 각 유형의 차이가 반영된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Akrivos D. Traumatic stress and PTSD symptoms as a result of school bullying: a cross national survey among Greek and American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004;39(5-6):80
- Berntsson LT, Köhler L, Gustafsson JE. Psychosomatic complaints in schoolchildren: a Nordic comparison.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01;29(1):44-54
- Choi SM, Kim DI.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skill and aggressive behavior by types of bystanders' role.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0;18(1):59-72
- Fekkes M, Pijpers FIM, Verloove-Vanhorick SP. Bullying behavior and associations with psychosomatic complaints and depression in victims. *Journal of Pediatrics* 2004;144(1):17-22
- Gini G, Pozzoli T. Bullied children and psychosomatic problems: a meta-analysis. *Pediatrics* 2013;132(4):720-729
- Gini G. Associations between bullying behaviour, psychosomatic complaints, emotional and behavioural problems. *Journal of Paediatric Child Health* 2008; 44(9):492-497
- Habashy HM. The social and emotional skills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of Egyptian primary 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013;48(5):910-921
- Kim YS, Leventhal BL, Koh YJ, Hubbard A, Boyce WT. School bullying and youth violence: causes or consequences of psychopathologic behavio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006;63(9):1035-1041
- Koh KE, Lee SL. The Characteristics of Violence Middle-School Students with Victims and Of-

- fenders Experience and the Effect Variable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School Violence Students' Type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5;23(1):1-28
- Lee EH, Kim YI, Geun HG, Lee YS. Effects of Academic Stress, Somatization Symptoms, and Social Support on Coping Responses in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5;28(2):56-66
- Lee JW. Relation of daily stress and coping style with health problems in 6th grade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02;6(1):39-51
- Lee MS. Determinants of adolescents' intention for group rejection: a process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00;9:177-203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 plan for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of school violence. Seoul, Korea. 2012
- Nansel TR, Craig W, Overpeck MD, Saluja G, Ruan WJ. Cross-national consist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behavior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2004;158(8):730-736
- Olweus D.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994;35(7):1171-1190
- Noh KA, Baik JS. A discriminant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adolescent group bullying typ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2013;11(3):113-124
- Park J. The Causes and the Settlements of Teenagers Mobbing. Human Social Science Research 2003;10:355-369
- Park NY, Ko JH. A component analysis on the cause of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 application of social relations model.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05;13(1):43-54
- Perren S, Alsaker FD. Social behavior and peer relationships of victims, bully-victims, and bullies in kindergart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2006;47(1):45-57
- Rigby K. Consequences of bullying in school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2003;48(9):583-590
- Shin SU, Kwon SW, Shin MS, Cho SC. A survey of the psychosis among school violence victims. Korean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000;11(1):124-143
- Smith PK, Brain P. Bullying in school: Lessons from two decades of research. Aggressive Behavior 2000;26(1):1-9
- Smith PK, Singer M, Hoel H, Cooper C. Victimization in the school and the workplace: are there any link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2003;94(2):175-188
- Yom YM. A Study on Difference of School Bully and School Bully-Victim Groups Mediating Effect Self-Esteem-.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2011;8(3):117-136
- Yoon YM. Analysis on bullying tendencies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07;21(2):230-240